

결핵상담실

상담. 김은배(중앙지회 복십자의원 원장)

Q

현재 약 10개월 가량 대학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차 4종류를 약 2개월간 복용하다 간독성과 아이나 내성으로 2주간 전면 중단, 다음 2주간 리팜핀+에탐부톨 그 이후로 약 7개월간 리팜핀+에탐부톨+크라비트 복용 중입니다. 환자는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야 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점 때문에 저를 치료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께 대해 조금씩 회의가 들기 시작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약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에탐부톨 같은 경우는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2. 약 복용기간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6개월만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 9개월, 1년, 이제는 1년 이상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계속 약복용 기간이 계속 늘어나니 앞으로 2~3년을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약 7개월 동안 계속 3제 복용했는데 최근 들어 약이 약하다고 6개월 동안 주사를 맞고 하시는데 더 빨리 주사치료를 시작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라진아미드 처방도 고려해볼 수 있을 텐데 왜 그렇지 않은지도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최근 예후가 나빠진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 상으로는 치료가 많이 되어 이제 거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4. 객담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객담검사는 6월에 딱 한번 했습니다. 치료 진행상황 등을 엑스레이만 가지고 해도 될런지요?

A

처음에 1차약 4종류를 복용한 것으로 보아 피라진아미드가 포함된 것 같은데, 아마 간독성으로 그 약을 계속 사용하지는 못한 듯합니다. 주사약은 초치료 때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않지만, 간 부작용 등으로 처방이 변경될 때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처방이 변경되면 치료약제가 좀 달라지므로 대개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치료경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흉부 X-선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객담검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의 사항들을 참조하시어, 병원을 바꾸는 문제는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남편이 30대 후반이고 20세에 형에게 결핵이 옮겨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종합검진을 하다 올 1월엔 없다가 6월 재검 때 결핵덩어리가 발견되어 치료 중입니다. 처음 2주 약을 먹고 피검사에서 수치가 좀 떨어져서 일단 한 달 정도 더 먹자고 하는데, 의사는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폐결핵에 2차약이 임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임신을 해도 될까요? 저 역시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받을까 합니다. 피검사나 폐사진에서 이상이 없어도 균을 보균할 가능성이 있나요?

A 남편이 폐결핵으로 1차 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부인은 결핵이 아니라면 임신에 별 영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차 약이든 2차 약이든 정자에 영향을 다소 미칠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건강한 정자가 최종적으로 난자에 도달하므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점에 관해서는 산부인과 의사와 꼭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접촉자 중에서 폐결핵은 아닌데 잠복결핵인 경우가 있으므로 접촉자 검진을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Q 4월 경 6개월 남아가 왼쪽 임파선이 부어서 입원을 했는데요. 결핵 반응 검사 결과 9mm정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폐 사진도 괜찮았고요. 3개월 후 다시 반응 검사 해보시자고 해서 9개월 남아 어제 반응검사 결과 11mm 정도 나왔습니다. 폐 사진결과는 괜찮았으나, 선생님께서 약을 9개월 먹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약 9개월간 먹이면 완치 되나요? 가족력은 없고, 엄마 아빠랑 위에 누나 둘이 있습니다. 6살 4살이구요. 결핵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또한 누나들과 생활을 해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A 만약 3개월 전에 임파절이 부은 것이 결핵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가족 중에 폐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현재 아기가 결핵 피부반응검사상 10mm 내외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과거 비시지를 접종받은 영향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결핵성 임파절염이었다면 결핵치료를 해야 하고, 가족 간 전염에 의한 양성반응이라면 결핵 예방치료(잠복결핵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폐결핵이 아니므로 누나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은 무방하며, 가족 간 전염이 의심된다면 결핵 검사를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